

2024년  
고2  
3월 학평

## 2024년 시행 고2 3월 학평 국어 문학 | 점경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한 아이가 경성에 있는 화신 백화점 진열창 앞에서 그 안을 기웃거리다가 쫓겨난다.

‘저건 뭘까?’

**아이**(고된 상황을 겪는 인물로, 서술자는 ‘아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신뢰성 없는 서술자와 ‘아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의 눈은 또 쌍꺼풀이 졌다.

‘과자! 과자 꼭들!’

아이의 상큼한 턱 아래에서는 아직 여물지도 않은 거렁이 뼈가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였다.

‘**뭘! 사 원 이십 전! 저것 한 곱에!**(과자를 사 먹을 돈이 없는 아이)’

[ 아이는 멍청하니 서서 지전 닉 장하고 십 전짜리 두 닉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 보는 마음은 이내 **꿈속같이 생기를 잃은 머리에서 지저분스러운 여러 가지 추억**(일제 강점기 시대를 사는 아이가 당한 고된 상황)을 일으켰다. **한 달에 팔십 전씩 석 달치 월사금\* 이 원 사십 전이 변통되지 않아서 우등으로 육 학년에 올라가긴 했으나 보통학교를 그만두고 만 것**(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이가 당하거나 본 일 ①), **좁쌀 값 스무 몇냥 때문에 아버지가 장날 읍 바닥에서 상투를 끄들리고 뺨을 맞던 것**(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이가 당하거나 본 일 ②),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후산을 못 했는데 약값 외상이 많다고 의사가 와 주지 않아서 멀쩡하게 돌아가신 것……**(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이가 당하거나 본 일 ③, 고된 삶을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 아이는 눈물이 핑 어리고 말았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과자 곱들이 극락에 가 비단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로 보였다. ]([ ]: ‘아이’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고통스러운 삶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팔원-서행 시초」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이는 마음속으로 불러 보았다.

‘그래, 걱정 말아. 내가 네 옆에서 언제든지 봐줄게……. 이 돈으로 어서 뭐든지 사 뭐.’

하는 소리가 아이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어디? 어머니?”

하고 둘러보면 **어머니는 간데없고 요란한 전차 소리만 귀를 때린다**(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 전차 / 어머니의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아이).

아이의 저는 몰라도 남보기엔 한편 다리를 약간 절었다. 그건 발목을 빠인 때문은 아니요 **힘에 부친 먼 길을 여러 날 계속해 걸어서 한편 발바닥이 부은 때문이다**(아이가 다리를 약간 절게 된 이유).

아이의 향방 없이 길 생긴 대로 따라 걸은 것이 탑동 공원까지 갔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팔각정이 조선어 독본에서 본 기억이 났고 공원은 아무나 들어가 쉬는 데라는 생각은 나서**(탑동 공원에 들어가게 됨.) 여기는 기웃거리지도 않고 들어갔다.

먼저 눈에 띄이는 건 **실과**(먹을 수 있는 열매의 총칭) 장사들이다. **광주리마다 새로 따서 과분이 뽀얀 포도와 배와 사과들이 수북수북 담긴 것들이다**(아이는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과일을 팔고 있음.).

**아이는 ‘하나 먹었으면!’ 하는 욕심은 미처 나지 못했다**(일제 강점기 시대에 과일을 보고서도 먹고 싶다는 욕심을 내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비극성을 부각함). ‘저게 그림이 아닌가? 진열창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났다. 그리고 **웬 양복 한 사람이 그 옆에 돌아서서 기다랗게 껍질을 늘어뜨리며 사과를 벗기는 것**(부유한

인물인 ‘양복 한 사람’과 그 밑에서 자기보다도 더 혈벗은 아이가 손을 벌리고 서서 그 껍질이 어서 떨어지기를,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려 눈과 입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섰는 것(가난한 인물인 ‘혈벗은 아이’, 인물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황의 비극성을 드러냄.)을 보고야 모두가 꿈도, 그림도, 진열창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투 가서 양복 신사가 어석어석 먹는 입과 껍질을 질경질경 씹는 아이의 입을 보고서야 그제는 바짝 말랐던 입안에 침기가 서리고 목젓이 혼자 몇 번이나 늘름거리었다(과일 껍질을 먹는 아이를 보고 자신도 과일 껍질을 먹고자 함.).

‘재처럼 껍질이라도 먹었으면!’

주위를 둘러보니 배를 사서 깎는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아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 하며(과일 껍질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함.) 그리로 갔다. 한 걸음만 나서면 그 두껍게 벗겨지는 배 껍질에 손이 닿을 만한 데서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는 반대로 뒷짐이 저졌다. 배 껍질은 거의 거의 칼에서 떨어지려 하는데 아이의 뒷짐 저진 손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아이는 배를 깎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조선 두루마기에 빛 낡은 맥고 모자를 쓴 어른인데 눈이 조그맣고 여덟팔자수염이 달린 얼굴이다(배를 깎고 있는 인물의 외양을 드러냄.).

‘저이가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 걸 알아줬으면! 그래 그 껍질이라도 먹으라고 주었으면!’

하는데 그 여덟팔자수염이 한번 찡긋하면서 입이 열리더니 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배의 한편 모서리를 덤석 물어 뺐다. 아이는 깜짝 놀래어 그 사람의 발 앞을 내려다보았다.

“저런!”

아이는 소리 지를 만치 낙망하였다. 그 두껍게 벗겨진 배 껍질이 그새 흠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넓적한 구뚝발로 그것을 짓기었고 작은 두 눈을 해끗거리며 ‘요걸 바라구 섰어?’ 하는 듯한 멸시를 아이에게 던지는 것이다(이기적인 맥고 모자를 쓴 어른, 자신이 먹지도 않을 과일 껍질을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방해함. 아이가 이해하기 힘든 어른의 모습 ①,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시대상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화끈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선다.

‘무슨 까닭일까?’

아이는 낙엽이 떨어지는 백양나무 밑으로 가서 생각해 보았다. 암만 생각해 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먹지 않고 버리는 건데 남두 못 먹게 할 게 무언가?(어른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낌.)’

아이는 한참 만에 까부러지려는 정신을 이상한 소리에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가다듬는다(사진을 찍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는 아이). 웬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 남녀가 섰는데 남편인 듯한 사람이 뵈\*만 한 새까만 가죽갑을 안고 거기 붙은 안경만 한 유리알을 저한테 향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다. 아이는 얼른 일어서 옆을 보았다. 옆에는 아까 그 아이, 저보다도 혈벗은 아이가 역시 어디선지 사과 껍질을 한 움큼 들고 와 질경거리다. 가만히 보니 그 서양 사람의 알지 못할 기계의 유리알은 자기와 그 애를 번갈아 향하면서 소리를 낸다. 아이들은 그게 활동사진 기계인 줄은,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모여 앉히고 놀릴 것인 줄은 알 리가 없다(일제 강점기 시대 속 가난했던 우리나라 아이들의 무지함.).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알지 못할 기계의 눈알이 자기를 쓸 때마다 왜 그런지 무섭다. 그래서 일어나 달아나려 하니까 웃기만 하고 섰던 서양 여자가 얼른 손에 들었던 새빨간 지갑을 열더니 은전 한 닢을 내어던진다(돈을 던진 서양 여자).

‘돈!’

그때 아이는 비수 같은 의식이 머릿속을 스치자 나는 듯 굴러가는 돈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오 전 한 닢에 달려든 것은 자기만은 아니었다. 그 사과 껍질을 먹고 섰던 아이는 물론, 웬 시커멓게 생긴 어른도 하나가 달려들었고(서양 여자가 던진 은전 한 닢을 보고 달려든 인물들) 그 어른의 지까다비\* 신은 발은 누구의 손보다도 먼저 그 백동전을 눌러 덮치었다. 두 아이는 힐끔하여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쳐다보니 돈을 밟은 지까다비 발의 임자는 의외에도 돈은 얼른 집으려 하지 않고 그냥 기계만 틀고 섰는 서양 사람을 금세 달려들어 먹살이나 잡을 듯이 부릅뜬 눈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 부부는 이내 기계를 안은 채 돌아서 다른 데로 갔고, 이 사람은 그제야 돈을 집더니 무어라고 중얼거리면서 한길 쪽으로 보이지도 않게 팔매를 쳐 버렸다(자신이 가지지 않을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게 던짐. 아이가 이해하기 힘든 어른의 모습 ② / 아이들에게 은전